

3D 프린터로 뽑아내는 '디지털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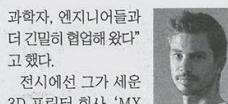
May 16, 2018 | 김상윤 기자

3D 프린터로 뽑아내는 '디지털 디자인'

네덜란드 디자이너 요리스 라르만
산업 디자인에서 폐려다임 전환
국제갤러리서 내달 17일까지 전시
“서울은 모두 직선이라 의아해요”



국제갤러리
서울에서 처음 공개된 '튜링 테이블'. 등을 줄무
늬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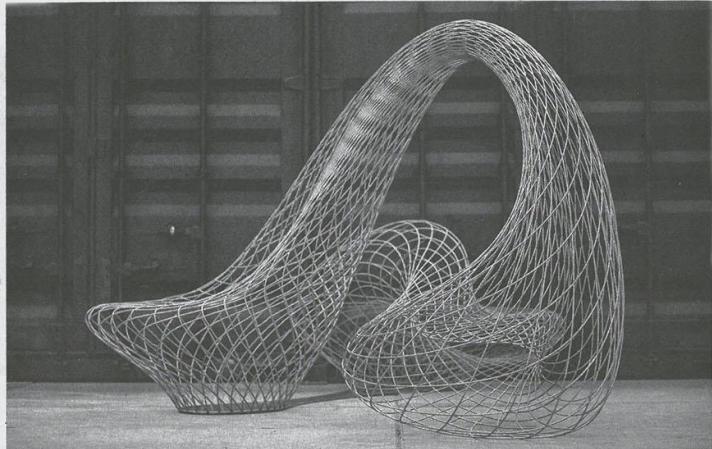
과학자, 엔지니어들과
더 긴밀히 협업해 왔다”
고 했다.

전시에선 그가 세운

요리스 라르만

3D 프린터 회사 'MX
3D'의 프린터로 만든
작품 등 30여 점을 선보인다. '튜링 테이
블'은 "등을 줄무늬 등 생태계 폐단은 화
학반응으로 생긴 것"이라는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의 '튜링 패턴'에서 착안했다.
영감을 얻어 역시 3D 프린터로 만들었다.
청동과 스테인리스스틸로 만든 테이블
상판에 표범이나 재규어 무늬 같은 도형
이 새겨져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람
자신처럼 전부 다르게 생겼다. 이 패턴
들을 라르만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
나하나 만들어 낸다.

'메이커 체어(Maker Chair)' 시리즈
는 단단한 호두나무로 각각 다른 모양의
퍼즐 조각을 만든 뒤 끼워 맞춰 의자를
만들었다. '메이커'는 의자를 만드는
(make) 디지털 기술을 가리킨다. 그는
메이커 체어의 퍼즐 조각 설계도를 인터



국제갤러리
'드래건 벤치' 요리스 라르만의 대표작 '드래건 벤치(Dragon Bench)'. 길이 3.2m 높이 1.6m다. 스테인리스스틸 케이블이 하중에 단진 그물처럼 복잡
하게 연결돼 있다. 용이 꼼를 거리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이 작품은 라르만이 정교하게 계산한 프로그램과 3D 프린터로 만든 것이다.

넷에 올려 누구나 따라 만들 수 있게 했
다. 소형 3D 프린터로도 따라 만들 수 있
고, 이를 응용하면 의자가 아닌 다른 모
양의 작품도 만들 수 있다.

라르만은 "내 애너지의 근원은 의자나
테이블 같은 일상의 사물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
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곧게 뺏은 직선
이 아닌 기울기 있는 곡선이라고 했다.

"어제 서울 도심을 산책하면서도 이상하
다고 느꼈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인체를
이루는 것은 천부 곡선인데, 서울은 건
물부터 청계천까지 거의 모두 직선이라
서 의아했어요." 그는 "그동안 산업사회
에선 직선이 주로 쓰일 수밖에 없었지만,
디지털 혁명으로 곡선을 산업에서 응용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라르만은 요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작은 운하에 높이 12.5m 길이의 다리를
만들고 있다. 낙후한 운하 범이 바뀔 수
있는 한계, 연인들이 기념으로 걸어놓을
자물쇠 무게까지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라르만은 "디자인에만 집중하지 않고 과
학·공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공공 시설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싶다"
고 했다. 전시는 6월 17일까지. (02)

735-8449

김상윤 기자